

# 지원 늘리고 주거타운 조성... 1인가구 살기좋은 서울 만든다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예산 115억  
상담 멘토링, 주거모델 개발 등 추진  
주거 안심 등 생활밀착형 정책 속도

서울시가 '1인가구 안심특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이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나홀로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강·범죄·고립·주거안심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시가 1인가구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15억1100만원으로, 전년 37억8100만원과 비교해 204.4% 증가했다.

서울시가 나홀로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AI(인공지능) 활용 생활관리 서비스 리빙랩',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모습. /서울시

상', '1인가구 세대통합형 주거모델 개발' 등이 있다.

우선 시는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나선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1인가구 상담 멘토-멘토 그룹 운영을 통해 나홀로족의 고립감과 우울

감을 없애고 사회 관계성을 증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3~4월 종로·용산·동대문·서대문·양천·강서·동작·강남·강동구 총 9개 자치구에서 멘토 46명, 멘티 118명을 모집했다. 시는 지난달 멘토를 대상으

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오는 10월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에는 우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 속 외로움을 덜고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AI 대화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리빙랩(생활 공간을 실험실로 삼아 민간-공공-시민이 힘을 합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치구가 발굴한 참여자의 대화습관과 생활패턴을 파악,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건강 악화 등의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공공서비스로 연결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AI 기능을 개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셜다이닝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소홀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중장년(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교실을 열어 건강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양질의 먹거리 정보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에는 용산구

(80명), 양천구(98명), 광진구(100명), 마포구(104명), 서대문구(112명), 강서·관악·도봉·성북·중구(각 120명) 주민 1094명이 참여한다.

시는 저이용 공공 유희부지를 활용, 다양한 1인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도 실시한다. 과업 내용은 ▲저이용 공공유희부지 발굴과 지역 여건 조사 ▲세대통합형 주거타운 조성 콘셉트·비전 수립, 공간·배치 계획 등 기본구상 ▲경제·재무/기술·환경 타당성 및 추진방식 등 실현가능한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SOC) 도입 검토 등이다.

내달 중 용역 중간보고가, 12월에는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1인 가구를 위해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저탄소 건물' 지원 확대... 65억 증액 “어르신, 무료 스마트폰 교육 받으세요”

건물에너지효율화 용자지원 사업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 개선

서울시는 '저탄소 건물 100만호' 달성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용자지원 사업 예산을 3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65억원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조명, 환기설비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 에너지를 절감할 경우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용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년 이내에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은 3년 이내 거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건물이다. 접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온라인 용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지원대상 중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성능 개선과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사업이 포함돼 있어 에너지 절감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전열 교환기 시공 사례. /서울시

특히 용산파크타워아파트의 경우도 시가스를 활용한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난방 전환 설비에 7억4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완공 시 기존 에너지소비량 대비 27%가량을 줄이고 연간 2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효율 환기설비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전열 교환기(고

효율 환기설비)는 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면서 공기의 열에너지를 회수,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온도에 가깝게 맞춰 주는 장치다. 보통 70% 이상의 기존 열을 회수하기 때문에 창문 개방 등 자연환기에 비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저탄소건물지원센터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디지털재단, 앱 활용법 등 교육

서울디지털재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스마트폰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누구나 7월부터 9월까지 '어디나 지원단 콜센터'로 전화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어디나 지원단은 ▲스마트폰 설정 및 기초(블루투스, 와이파이 설정, 문자전송) ▲카카오톡 활용(프로필 편집, 사진 전송, 메시지 공유) ▲실생활 앱 활용(기차예매, 지도앱 사용) 등의 내용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교육 장소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관악구 신한은행 디지털라운지 등이며, 향후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도 전화로 쉽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오픈했다”며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꿈꾸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내달 1일부터 5부제로 나눠 신청  
대중교통·자차 유류비 사용 가능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에 한해 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했으면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를 통해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이달 마무리

11월 중 재개관 예정

서울시는 '서울연극센터'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11월 중 재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극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서울연극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1020㎡ 규모로 조성됐다. 교육라운지(오픈 북라운지), 홍보라운지 같은 소통 공간과 아카데미룸, 세미나실, 공유랩,

화이트박스 등 연극인 전문 창작 지원 시설을 개선·확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유랩은 각종 중·단기 연극 프로젝트 그룹과 단기 축제사무국을 위한 공유형 창작공간이고, 화이트박스는 다목적 창작 스튜디오다.

서울연극센터는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설계공모를 거쳐 이듬해 착공, 이번 달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후 모습. /서울시

에 공사를 완료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